

■ 주차장 우려되는 20 문화전당

# 교통혼잡 부추겨 '열린 금남로' 물거품

문화전당 기본설계안은 기획예산처의 예산 절감 요구에 따라 전당 내외부 주차장 조성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 전당의 기본 컨셉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심 교통혼잡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문화전당 당선작 발표 당시 랜드마크 크적 기능을 강화해달라는 지역 각 계의 요구 수준에 비춰볼 때 설계에 큰 변화가 없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문화전당 기본설계 중간보고회 광주시 관계자는 완전히 배제된 채 용역기관 및 문공부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시와 문공부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주차장화 된 문화전당=문공부 추진기확단은 문화전당 연면적 4만3천평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가 570대인 만큼 전당 외부에 최소 1천면~최대 2천면 가량의 주차장을 확보, 시민들이 외곽 주차장에 차를 두고 걸어서 전당으로 접근토록 할 계획이었다. 대신 전당 내부에는 100면을 확보해 긴급 및 필수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산이었다.

외부주차장은 통행 차량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임과 동시에 시민들이 걸어서 공원으로 접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본설계안은 전당 내부에 600면을 확보하는 대신 외부주차장 조성을 삭제했다. 문화전당에 다양한 출구를 만들면 교통혼잡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문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통전문가나 광주시 관계자들은 외부주차장 없이 문화전당에 일반 건물과 동일한 기준의 주차장을 만든다면 교통혼잡은 물론 시민공원을 목표로 한 전당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등의 문화전당 부

## 외곽 주차장 조성 대신 내부 주차장 확대 기능 대폭 축소...광주 5·18정신 못 살려

■아시아문화전당 지하 3층 평면도



도면의 적색부분이 주차면. 이밖에 어린이 지식문화센터의 지하 2개층도 주차장으로 변경됐다. 이는 당초 설계 주차면적의 6배에 달한다.

지는 현재도 상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을 외곽에서 차단하지 않고는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랜드마크 기능 부여 없어=지난 해 12월 2일 문화전당 당선작이 발표되면서 지역에서는 광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었다.

시와 시의회, 지역 건축계,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 계는 당선작이 독창성과 친환경성을 겸비한 우수한 작품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세계 유명 건물에 비해 건축 조형

미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자체가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기본설계에는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 다만 4개의 주 건물중 '아시아문화창조센터'와 '어린이 지식박물관' 등 2개의 건물을 평탄 상태에서 지상으로 10m 정도 높이도록 설계돼 있지만 이 정도의 설계 변경을 랜드마크 기능 부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문공부 관계자는 기본설계도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보고 상태 만들고 설계의 성격에 규정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참여없는 기본설계 중간보고=중간보고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회 사실 자체를 몰랐던 광주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업의 성격이 국책사업이고, 중간보고회라고는 하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인 시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공부는 보고회가 중간보고회였기 때문에 설계기관과 문공부 관계자 등 실무자 위주로 진행될 뿐이라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문공부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자체를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문화전당 설계 어떻게 되나=문화전당 외부주차장 축소와 내부주차장 확대를 골자로 한 기본설계안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문화전당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외부주차장 없이 내부주차장만을 확장시켜서는 '금남로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중인 금남로프로젝트에 불가능한 만큼 당초의 외부주차장 조성계획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문공부 추진기확단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외부주차장 문제나 랜드마크 기능 부여 문제 등도 지속적인 과제로 다루고 있다"면서 "현재는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여서 어떤 형태로든 갈등 양상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잘해 봅시다" 당·정·청 4인 회동

당청 관계 원활화를 위해 구성된 '고위 당·정·청 4인 회동'이 8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처음 열렸다. 이날 회동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의장, 한명숙 총리,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좌로부터)이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또 미뤄진 전남도 조직 개편안

### 도의회 수정안 처리 싸고 이견...상임위 무산

전남도의회는 8일 제218회 임시회를 개최했으나 전남도 조직개편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제 217회 임시회에서 심의 유보했던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전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직개편 관련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수정의결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산회했다.

기획행정위는 이날 위원장단이 만든 수정 가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일부 위원들이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수 위원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일방적인 수정안 작성에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수정 가안은 경제과학환경국의 비대화,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포괄적 규정, 별정직 공무원 3명 증원, 행복마을과의 사업취지와 기구개편 등 4가지 쟁점 가운데 '별정직 공무원 증'과 '행복마을과 설치'를 수용하는 반면, 환경분야는 해양수산환경국으로, 정무부지사 사무분장은 당초 조례상 7개 조항을 살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일부 위원들은 집행부에 수정동의안을 요구하자하는 의견도 제기했으나 이는 현행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임흥빈(민주·신안)간사는 "수정안 처리 절차를 둘러싸고 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다"며 "10일 상임위에서 수정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민주, 영암군의회 신락현 의장 제명

### 조광호 의원은 경고 조치

민주당 전남도당은 8일 의장 선출과 정에서 다른 당 출신 의원들과 연대한 영암군의회 신락현 의장을 제명키로 하고 이에 동조한 조광호 의원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신 의장 등이 당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당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인 신 의장은 영암군의회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민주당 박영배 의원을 의장으로, 박영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키로 합의했지만 다른 당 출신 의원들과 공조해 자신이 의장으로 당선되고 타당 소속 의원을 부의장으로 당선되도록 해 윤리위에 소집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아 문화전당 '특별 회계' 반영될까

### 與, 10일 당정협의 열고 결론 낼 듯

중심도시 특별회계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다.

당정은 이날 지금까지 쟁점이 돼왔던 '특별법 내의 특별회계 설치'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 정책상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 관리하는 추세라는 것을 강조하며 사업 계획 자체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특별법 내의 특별회계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도

아시아문화전당 완공시기를 2010년에서 2010년 이후 단계적 건립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반면 광주시와 광주지역 여당 의원들은 당장 세입이 없더라도 특별회계는 정치적 상황을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길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감당하기에는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진만기자 man21@

Advertisement for Timpia (TIMPIA) air conditioning units. Features a large image of a white air conditioner and a blue unit. Text includes '70% 에너지 절감' (70% energy saving) and '시원한 여름을...' (Cool summer...). Contact information: (062) 222-7118, 060-775-7117.

Advertisement for (株) 행복출발 (Happiness Start) featuring a woman in a pink outfit. Text includes '(株) 행복출발은' and '행복출발은...' (Happiness Start is...). Contact information: (062) 537-3388.